

한국광학기기협회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2009년도 협회활동을 결산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한국광학기기협회의 2010년도 제23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팔레스호텔 스카이 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결,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2009년도 잉여금 처분(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 협회 임직원들의 급여규정(안) 등이 논의되었다. (편집자 주)



▶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제23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7일 서울팔레스호텔 스카이 룸에서 열렸다.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지난 3월 17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협회 측의 성원보고와 박상진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박상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금융위기로 회원사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더블딤(이중침체)이 예상됐으나 점차 세계경제가 회복단계로 가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회원사들의 큰 성장을 바란다”고 말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협회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협회

도 올해 더욱 분발하여 회원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격 안건 심의로 들어가 본 협회 우태주 부회장은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과 관련하여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부분인 결산총괄표, 당기예산결산 대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예결산대비표에 대해 설명했다.

2009년도 사업실적 보고

우태주 부회장은 2009년도 협회의 사업보고를 통해 전년도에 회원에



▶ 박상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총 8개사로 이중 정회원이 7개사, 특별회원이 1개사이고 임의탈퇴와 제명업체가 총 18개사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보고에서는 전략기술개발 사업, 첨단정밀광학지원센터 설립 관련 추진현황, 첨단광학산업기술 연구조합 설립관련 추진현황, 정밀광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일 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 국내외 전시사업, 광학관련 표준화 사업 등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중 정밀 광학기술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초정밀광학산업의 기초 및 응용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5년간 현장형 교육을 통해 650여 개 사 광학업계 (4,500여명)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14개사 14명에 대해 일

본 교토대학/리츠메이칸대학/Isuzu Glass에서의 기술연수추진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평가회의에서 계획대비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이하 P&I 2009)에는 코엑스와 공동 개최한 결과 19개국 151개 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64,971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업체 상담액 1500만 달러, 계약액 600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2010년도 주요 사업추진계획

역시 본 협회 우태주 부회장의 설명으로 진행된 2010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기본 방향을 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강화, 국내외 전시사업 지원 확대,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잡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을 위해 2010년에는 광학업계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정밀광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더욱 알찬내용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고, 연구조합 설립 및 전략기술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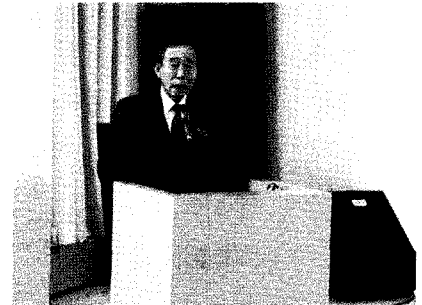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광학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월에 '첨단 광학소자 및 응용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파시피코 요코하마

에서 열리는 '렌즈설계.레이저 산업 전시회 수출상담회'에 협회와 6개사가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처음으로 참가하는데 이를 통해 일본시장공략 및 수출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시사업과 관련하여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P&I 2010'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 21일에 열렸던 'PMA 2010'에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한데 이어 9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Photokina 2010'에도 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광학관련 표준화 연구사업과 광학 및 광학기기(TC172) 국제표준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회원사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각 업종별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업계 이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광학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책자 발간 배포, 협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통한 광산업 정보제공 및 DB기반 구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협회 주최로 '광학인의 날'을 재정하여 광학산업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기술자문을 비롯하여 협회가 주관하는 광학KS사업 및 한일연수사업 등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청주대 이종용 교수와 한국산업기술대 조연정 교수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 협회 감사인 (주)한광옵토의 노원복 회장이 감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우태주 상근부회장의 진행으로 협회 사업보고가 있었다.



▶ 박상진 회장과 공로패를 받은 청주대 이종용 교수(사진 오른쪽)



▶ 박상진 회장과 공로패를 받은 산업기술대 조연정 교수(사진 오른쪽)